



이경덕 옮김
주니어김영사/A5/196면/4900원

어른이 먼저 읽어야 할 동화 해설서

마이클 콜먼의 《뜨끔뜨끔 동화뜯어보기》

추석연휴에 고향을 다녀오면서 예상치 못한 흥역을 치렀습니다. 고생하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일찍 나섰습니다만, 너무 밀려 평소 3시간 정도면 달을 거리를 무려 12시간이나 걸려 돌아왔습니다. 그 지겨운 '동맥경화'의 대열에 본의 아니게 동참하게 되면서 걱정스러웠던 것은, 아이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니다. 처음에는 잘 견디더니, 시간이 흐르자 아나나 다를까 아이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위기 타개책'으로 내놓은 것은 다름 아니라 동화책 읽기였습니다.

평소 잠들기 전에 꼭 책을 읽는 아이의 습관 때문에(스스로 밝히기 민망하지만, 제가 꽤 공을 들인 덕입니다) 몇권의 동화책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유용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거북이처럼 기다시피하는 차를 타고 있었지만, 책을 함께 읽는 동안에는 서로 지겹거나 괴롭지 않았습니니다. 읽는이나 듣는이나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 초가를 들녘을 거침없이 날아다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는 이유

동화책 읽기에(더 정확히는 듣기에) 지쳐 잠든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며, 제가 굳이 아이에게 책을 가까이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이나 피아노, 그리고 영어같은 것을 잘 하게 뉘달하는 게 아니라 왜, 고작 책읽기의 중요성을 아이에게 강조하는가 해서입니다. 가만히 곰씹어보니, 제가 결코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기 위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논리적 사고와 상상력을 키워 정보사회에 적응할 만한, 경쟁력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겠다는 게 이유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적, 바깥바람을 쐬러 나가면서 저는 불현듯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햇빛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는 날이었는데, 제 그림자가 아이에게 그늘을 드리워 햇빛을 막아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그림자가 아이를 덮어주지 못하는 때가 되면, 제가 더 이상 아이의 보호자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아이의 정신적 버팀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훌쩍 커버려 제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바로 그때를 대비해 저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말이 꼬였나요. 조금 풀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삶의 고비를 맞이했을 적에 그 해결책을 부모에게 의지할 수만은 없는 순간이 오리라는 예감이 들었던 거지요. 하지만, 책은 아이의 고민을 푸는 실마리가 되줄 것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되묻진 마십시오. 제가 오래 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부모들이 먼저 읽어야 할 책

마이클 콜먼의 《뜨끔뜨끔 동화뜯어보기》(이경덕 옮김, 주니어김영사)는 목적이야 서로 다르겠지만 아이에게 동화책을 즐겨 읽어주는 부모들이 먼저 봐야 할 책입니다. 아이에게 동화책을 열심히 읽어주는 사람은 많지만, 과연 동화란 무엇인가 물었을 때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저도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그 기획의도가 비록 초등학교 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리즈 가운데 하나지만(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부모가 먼저 읽어야 할 책이라는 것이지요. 이 책의 좋은 점은 뭐니뭐니해도 재미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동화책

아주 색다르게 구성해 재미의 '당도'를 높였습니다. 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빗대면 '그것이 알고 싶다' 형으로 동화를 재구성하는가 하면, 일기나 만화꼴로 동화를 새롭게 꾸미기도 했습니다. 신문형식으로 다시 꾸민 동화를 읽다보면, 지은이가 얼마나 재간꾼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알자상식'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동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양을 얻을 수 있는 코너인데, 이 부분도 참 유쾌하게 꾸몄습니다. 어느 한군데 허술히 다루지 않은 거지요. 좀 멋부려 이야기하자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보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한, '모던'한 책입니다.

이 책이 의도한 바는 '무사제 완역판'입니다. 대부분의 동화는 이런저런 이유로 원형이 많이 손상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원본을 되살려내고 있는 것이지요. 아쉽지만, 이 대목에서 이 책의 한계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이렇 폐처의 《누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웠는가》같은 날카로운 분석은 없는 탓입니다. 게다가 동화의 상징성에 관한 분석에서도 베레나 카스트의 《어른이 되는 이야기》와 《동화속의 남자와 여자》(이상 철학과학현실사)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책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읽고나면 동화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순수한 의미의 창작은 아닙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좀더 다양한 형식으로 기존의 동화를 비틀어 새롭게 써보고 싶은 것이지요. 이걸 가리켜 패러디라고 하나요. 다 아는 이야기라 자만하지 않고, 지은이가 들려주는 동화의 의미와 구성방식에 귀 기울이면, 아이를 책과 더 가까이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이권우 기자